		보 도 자 료 11월 23일(금) 조간 (11.22 12:00 이후 보도)	
배 포 일	2018. 11. 22. / (총 6매)	담당부서	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
과 장	성 창 현	전 화	044-202-3410
담당자	서 민 수		3828

아동수당 시행 3개월,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

- 0~5세 250만 명 중 96.1%인 240만 명 신청, 그 중 4.0%는 소득·재산 초과로 제외 -
 - 저소득 복지수급 가구의 미신청 아동 600명 전수조사 실시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. (9~11월 누적치)

* 11월분 지급대상은 215만 명 (지급일: 11.23(금))

○ 현재까지 240만 명(0~5세 아동 250만 명 중 96.1%)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, 신청아동 중 4.0%(약 10만 명)는 소득·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

□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. (9~11월 누적치)

○ 해당 아동의 경우,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.

*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.3만 명

< 아동수당 신청·지급 등 현황 (9~11월 누적치) >

구분	신청	지급	제외	지급여부 미 결정자		
				소계	금융재산 조회 중	지자체 조사 중
아동 수	240.1만 명	221.1만 명*	9.7만 명	9.3만 명	3.0만 명	6.3만 명
비율	100%	92.1%	4.0%	3.9%	1.2%	2.6%

* 연령기준상 10월까지만 받았던 '12.10~11월생 제외 시 11월 지급자 수 215만 명 (=221.1-6.1)

□ 한편,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,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.

○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,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,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.

※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발견하여 경찰·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, 장애·부모 부재 등 보호·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 진행 중

○ 그 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, 혼외자,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거부하였다.

< 아동수당 미신청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전수조사 결과 >

합계	신청 완료		미 신청		
	직접신청	대리신청	연락두절	신청거부	기타 (해외입양, 전출 등)
600	338	20	138	47	57

□ 아울러,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(10.10일 ~ 11.5일)에 총 1,721점이 접수되었다.

○ 이 중 성장, 미래, 행복, 가족분야별* 15점을 선정·시상(11.16일)하였으며, 선정된 사진은 아동수당 홈페이지(ihappy.or.kr) 게재 및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.

* 【붙임2】 : 각 분야별 대표사진 1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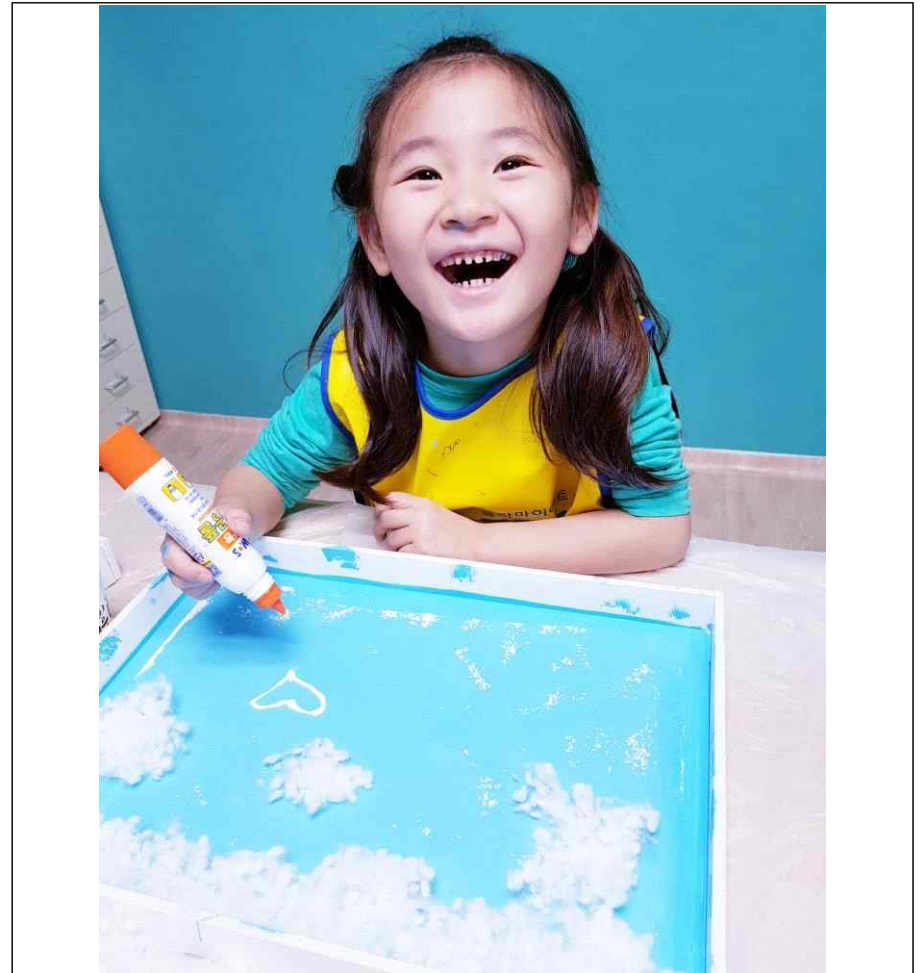
< 사진 공모전 “아동수당 첫 만남의 기록” 선정분야 >

- ▲ (무력무력) 아이 성장을 위한 교육비, 의식주 등 관련 활용
- ▲ (차곡차곡) 아이 미래를 위한 저축, 저금 등 관련 활용
- ▲ (아이행복)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, 키즈카페 등 관련 활용
- ▲ (가족사랑) 아이와 가족을 위한 외식, 여행 등 관련 활용

붙임1 아동수당 지역별 신청·지급 현황 (9~11월 누적치)

	대상 연령 아동 수 (A)	신청 아동 수 (B)	신청률 (B/A)	지급 아동 수 (C)	지급률 (C/B)	지급제외 아동 수 (D)	제외율 (D/B)
전국	2,498,996	2,400,609	96.1%	2,210,401	92.1%	96,630	4.0%
서울	408,461	372,884	91.3%	310,126	83.2%	34,027	9.1%
부산	148,020	142,455	96.2%	133,299	93.6%	4,339	3.0%
대구	112,707	109,416	97.1%	103,029	94.2%	3,452	3.2%
인천	146,228	141,230	96.6%	133,437	94.5%	2,991	2.1%
광주	74,118	72,331	97.6%	68,758	95.1%	1,678	2.3%
대전	74,777	72,575	97.1%	68,674	94.6%	2,027	2.8%
울산	64,046	62,500	97.6%	59,163	94.7%	1,400	2.2%
세종	26,117	25,386	97.2%	24,045	94.7%	675	2.7%
경기	699,721	675,218	96.5%	614,637	91.0%	32,389	4.8%
강원	63,601	61,908	97.3%	59,471	96.1%	962	1.6%
충북	77,402	75,679	97.8%	72,153	95.3%	1,639	2.2%
충남	109,734	106,982	97.5%	101,526	94.9%	2,570	2.4%
전북	80,856	78,933	97.6%	76,069	96.4%	1,409	1.8%
전남	83,403	81,361	97.6%	77,750	95.6%	1,125	1.4%
경북	122,175	119,068	97.5%	114,155	95.9%	2,003	1.7%
경남	171,168	167,366	97.8%	161,097	96.3%	2,803	1.7%
제주	36,462	35,317	96.9%	33,012	93.5%	1,141	3.2%

붙임2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선정사진 (분야별 대표사진 1점)



(무럭무럭) 정서진 '여섯살의 해피 타임!! 놀이미술'

우리집 둘째!! 아이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니 온 신경을 다 써서 키우던 첫째 때와는 달라 늘 미안했는데요. 평소 그림 그리고 만들고를 좋아하는 딸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놀이미술을 시작하게 되었어요. 신나게 수업하고 와선 툭툭 튜는 표현으로 설명하느라 재잘거리는 모습을 보면 저희 부부 행복해집니다.



(차곡차곡) 여수진 '540g 이른둥이의 희망수당♡'

2018년 8월 4일 540g으로 예정일보다 110일 먼저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위해, 9월달 처음받은 아동수당부터 자동이체로 적극신청 해줬습니다! 원래는 11월이 예정일이라 11월부터 받을 수 있었을 텐데, 세상에 조금 일찍 나온 덕분에 2018년 9월 첫 수당부터 지급받게 되어 아이를 위해 더욱 의미 있게 저금해주고 싶었습니다! 5년이 최대기한이라 적금을 5년으로 해줬지만, 72개월 딱 채워서 아이를 위해 쓰고자 합니다^^ 그리고 통장 도장은 탯줄도장으로 만들어서, 아이가 나중에 이 통장만으로도 충분히 이른둥이로 태어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. (이른둥이 탯줄이라 더 작고 귀여워요!)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를 위해 첫 달 아동수당부터 차곡차곡 저축하여, 더욱 건강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길 매달 아동수당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♡



(아이행복) 구도연 '행복한 울 집 아이들'

아동수당 덕분에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나와서 다 같이 맛있는 점심도 먹고 문화복지센터에 와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^^



(가족사랑) 윤자연 '해맑은 우리 아이들'

여행과 사진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.. 아동수당 덕분에 한 달에 한번 여행을 더 가게 되었고.. 더 많은 추억과 웃음이 가득 쌓이겠지요 ^^